

# 서울시, '지갑 없는 주차장' 선보인다



서울시 지갑없는 주차장 흐름도.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등록해둔 결제 정보로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이른바 '지갑 없는 주차장'이 9월 서울시에 7곳에서 첫 선을 보인다. 무인주차관리에서 진일보해 자율주행시대에 걸맞은 주차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2020년 8월까지 109곳으로 확대된다.

9월 서울시에 따르면 '지갑 없는 주차장'에서는 요금지불을 위해 정차할 필요도 서둘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다. 제로페이 결제로 10%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법정할인이나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지참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동결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수납

오는 9월 공영주차장 7곳 시범 적용해  
2020년 8월까지 109곳으로 확대 예정  
제로페이 10% 할인 등 결제 '다양화'

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통합주차플랫폼을 통해 가공돼 실시간 주차장 정보, 주차 예약 서비스 등의 형태로 시민에게 환원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자동결제시스템과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9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7곳(노외 5곳·노상 2곳)에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시범 운영한다.

건물 등에 조성된 노외주차장의 경우 입·출차 지점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출차 시 사전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주차요금이 자동결제된다. 도로 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주차관리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주차면에 설치된 차량인식센서가 입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출차 시에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자동결제에 사용할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는 홈페이지와 앱을 제작하고 교통선·후불카드와 신용카드 외에도 제로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주차관리 시대를 앞당긴다. 주차장으로부터 입·출차, 결제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가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주차장 수요·공급 관리, 맞춤형 주차정책제공 등에도 활용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영주차장이 무인결제기 주차권 없는 친환경 주차장에 이어 이번엔 지갑 없는 주차장으로 거듭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 '서울아레나' 공연의 참맛 느낀다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2024년 개장되는 가운데 서울아레나의 규모와 부대 시설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9일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총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아레나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5284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민간 사업이다.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케이팝(K-POP) 스타들의 대형 콘서트나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의 경우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전문 공연장이 없다. 체육시설이나 대학 부속시설 등에서

의 대형공연 등이 펼쳐진다. 건립계획을 보면 1만8400명 동시 수용 대형 실내공연장과 중형공연장, 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이 탄생한다.

서울아레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아레나 공연장 관람석 규모(1만5000석~2만4000석)의 중간 규모인 약 1만8400석으로 조성된다. 콘서트에 최적화된 전문시설(무대·조명·음향)을 갖춰 공연시 설치·해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문가 수준의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중형공연장의 경우 플랫폼창동61과 연계해 발랄한 신진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와 콘서트를 비롯해 팬미팅

국내 최초·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 오는 2024년 개장  
1만8400명 동시수용, 연간 약 90회 이상 공연도 가능  
중형공연장·영화관·대중문화전시관 등 복합문화시설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1만석 이상 공연가능시설은 ▲상암 월드컵경기장(6만6000석) ▲잠실 주경기장(6만9000석) ▲울림공원 체조경기장(1만5000석) ▲고척스카이돔(2만5000석) ▲잠실 실내체육관(1만4000석) 등이다.

문제는 공연이 주목적인 공간이 아니다보니 무대장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대 설치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무대공간 구성이나 연출, 장비 활용 등에서 제약이 많아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같은 다양한 공연 유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형 콘서트 단골장소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경우 체육 행사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공연장 대관 경쟁이 치열하다. 대관에 실패한 경우 객석 수가 적은 시설로 옮겨가거나 공연 자체가 연기·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서울아레나가 개장되면 K-POP 콘서트 해외 뮤지션의 내한 공연, 음악 시상식과 페스티벌, 대형 아트퍼포먼스 등 연간 약 90회 이

어런이 콘서트, 뮤지컬 등의 다양한 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된다.

영화관은 독립·예술·다큐멘터리 전용상영관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객층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된다. 영화상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든다.

대중음악지원시설도 생긴다.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정리해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대중음악인을 기리는 '대중음악전' 시설을 설치한다. 시대별 전시관 명칭의 전당, 교육공간, 뮤지엄 샵, 가상공연체험관과 악기체험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는 2023년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최고 49층 규모로 조성될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은?

서울도서관, 10권 선정

서울도서관은 올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독서 대상을 고려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나눠 선정했다. 선정된 책은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서울도서관에 따르면 어린이를 위한 도서 중 그림책 부문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룬 '북극곰이 녹아요(박종진 저)'와 어린이들의 학업에 관한 이야기 '행복한 가방(김정민 저)'이 뽑혔다.

글책 부문에는 장애를 지닌 어린이가 달랑대는 짝꿍을 만나 새로운 모험을 겪는 이야기 '비람을 가르다(김혜은 저)'와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회에 대한 책 '비밀'(박상기 저)가 선정됐다.

청소년을 위한 도서로는 문화 부문에서 협업을 주제로 청소년과 소통하는 '싸이퍼(탁경은 저)'가 비문학 부문에서 넘쳐나는 뉴스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책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홍성일 저)'와 반려동물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박종우 저)'가 올해의 한 책에 이름을 올렸다.

성인 도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를 직시하는 '말에 대하여(김혜진 저)'가 문학 부문에,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저)'과 대중문화 속 괴물이라는 소재를 흥미롭게 풀어낸 '우리 괴물을 말해요(이유리, 정예은 저)'가 비문학 부문에서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은 서울시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2월부터 자치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24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시민청 태평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8권의 저자와 함께 하는 저자간담회도 열린다.

뉴스시

## 서울시, '남녀 출산지원사업' 10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업산제 등 종합비타민·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위험 요인을 집중관리해주는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을 10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다. 약 3000명의 가입자 남녀가 건강출산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 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등) ▲업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4개구 참여자 남녀 4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5.1%(385명)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가입자 남녀 권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8.9%(378명)이 '권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0여개 자치구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출산프로그램 신청도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3월 구축 예정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건강한 임신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웹드라마 웹툰'을 활용해 '행복한 임신 아이 좋아 캠페인'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

임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한 임신을 계획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웹 드라마와 웹툰 형식으로 담았다.

내배우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은 그 첫 단계로 건강한 임신은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검진 등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